

---

# UN post-2015 발전의제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결과 보고

---

2015. 1.



**통계개발원**

# 목 차

1. 개요 .....	1
2. Westat 업무협약 .....	1
3. UN 글로벌 (비공개) 회의 참석 .....	4
4. UN 대표부와의 업무협약 .....	16
5. Post-2015 발전의제 국가간 협상 제1차 회의	18
6. 관찰 및 시사점 .....	21

## 【첨부】

1. UN 글로벌 회의 발표자료(별첨)
2. Westat과의 MOU(잠정)(별첨)

## 1. 개요

### □ 출장 목적 및 회의 기간

- (Westat) 미국의 통계연구생산기관인 Westat과 향후 공동연구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('15. 1. 13)
- (UN대표부 회의) Post-2015의제 관련 업무협약('15. 1. 14)
- (UN 통계회의) UNSD와 Eurostat가 공동주관하는 '공식통계의 변화: Post-2015지원 관련 전략적 프레임워크' 글로벌 회의 참석('15. 1. 15~16)
- (UN 정부간회의) Post-2015발전 의제 관련 정부간 협상 제1차 회의 한국대표단으로 참석('15. 1. 21~23)

## 2. Westat 업무협약

### □ 일시, 장소 및 참석자

- 일시 및 장소: '15. 1. 13.(화), 워싱턴 D.C. 근교, Westat
- 참석자: David Morganstein 통계국 국장/부사장, 이현식 박사, 김민선 박사

### □ 논의 내용

- Westat은 법률적 검토 후 수정(안) 제시한 통계개발원의 MOU\*에 대해 통계개발원은 법률적 검토 및 의견 제시 후 MOU 체결예정
  - \* 공동연구, 연구자 교류 및 훈련, 자료 공유 등 포괄적 내용 수록
- 비밀보호, 임퓨테이션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분야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 공유 및 의견제시
- 이현식 박사를 focal point로 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공동연구, 업무협약 분야 등 상세 논의 후 수행 추진

### 3. UN 글로벌 (비공개) 회의 참석

#### □ 개요

- 회의 명칭
  - Transformative Agenda for Official Statistics: "Towards a Strategic Framework for Statistics in Support of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"
- 일시 및 장소: 2015. 1.15.~16., 미국 뉴욕 UN 본부
- 주관기관: UNSD와 Eurostat
- 참석자: 국가통계기관장(40개)과 지역 및 국제통계기구기관장(20개)
  - 한국: 박경애 통계개발원장, 김혜련 사무관
- 회의 목적
  - Post-2015 발전의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통계의 전략적 변화를 위한 논의와 제언을 제46차 통계위원회에 제출
- 회의 자료: <http://unstat.un.org/unsd/nationalaccount/workshops/2015/NewYork/1od.asp>
- 회의 방식: 세션별로 발제 30분, 질문 30분, 분임(4개)별로 현장에 부여된 질문에 대한 토의 60분, 토의결과 발표 60분으로 구성
  - \* 한국(박경애)은 분임의장 역할
- 세션 구성

일자	세션	주 제 (발제자 및 제목)
1. 15	세션1	글로벌통계시스템을 위한 정책적 수요로부터의 새로운 요구 사회: Mr. Pieter Everaers, Eurostat 발제: Mr. Enrico Giovannini, Towards a comprehensive global policy agenda: what does it mean for statistics?
	세션2	자료 수집, 배포, 접근 및 분석의 혁신 사회: Ms. Mariana Kotzeva, Eurostat 발제: Mr. Pdraig Dalton, Evolution or revolution?
1.16	세션3	서비스지향 통계업무 및 정보 아키텍처에 근거한 현대적 통계생산과정 사회: Mr. Ivo Havinga, UNSD 발제: Mr. Geert Bruinooge, Towards an integrated Statistics Programme for the post-2015 development agenda
	세션4	이행수단 사회: Mr. Stefan Schweinfest, UNSD 발제: Mr. Mohamed Taamouti, Means of implementation for the post-2015 development
	세션5	결론 및 제언 사회: Mr. Stefan Schweinfest, UNSD Ms. Mariana Kotzeva, Eurostat

## □ 세션1의 주요 내용

- ◆ 발표자: Mr. Enrico Giovannini  
(전 OECD 통계국장, 전 이태리통계청장, 현 로마대학교 교수)
- ◆ Post-2015 발전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다양한 통계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조정(coordination) 필요성 및 방법, 비정부기구의 참여 문제, 자료 및 메타데이터의 개선 등 논의

### ○ IEAG의 보고서\*

- SDGs의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효율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조정을 요구
- \* 지속발전을 위한 자료혁명 관련 독립전문가 자문그룹 (IEAG: the Independent Expert Advisory Group on data revolu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)의 “A World That Counts”

### ○ UN통계위원회(UNSC: Statistical Commission) 업무의 구조 개선

- 2015년까지 UNSC의 업무프레임워크의 영역과 SDGs의 잠정지표(주제별)와의 맵핑을 통해 일치여부 및 신규영역 개발 필요 등을 검토 필요

### ○ SDGs를 위한 국제통계구조 개선

- 통계 현대화를 위해 새롭게 조정된 국제통계프로그램\*(global statistical programme) 개발 필요
  - \* 기준과 원칙설정, 국가개선 프로그램의 통합, 투명성과 개방성 향상, 새로운 방법, 기술 및 자료의 활용
- 기존의 통계활동조정위원회(CCSA: the Committee for the Coordination of Statistical Activity)의 역할 강화
- Post-2015 발전의제와 관련하여 UN, WB, 지역은행 및 IMF간에 체결된 MOU 실행
- 민간, 시민사회 및 연구 분야 등 비정부 기관의 자료제공자들을 국제통계시스템에 동참을 위한 새로운 규정 수립
- 국제적 “자료와 메타데이터 수집 포털”(data and metadata collection portal) 개발 및 국제적 “통계클라우드”(statistical cloud)의 개발

- 자료와 메타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준을 개발 및 채택하기 위한 노력 강화
  - \* 비용감소, 자료의 시의성 및 국제비교 가능성을 위해 SDMX와 DDI 표준의 개선
- 통계개발 우선순위 결정, 사용자 요구 대응 등을 위한 국제적 “자료 사용자네트워크”(global data users network) 구축

### ○ 국가통계시스템의 도전과 기회

- (국가우선순위 결정) SDGs 등 국제적 정책목적과 국가 정책목적간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기존의 국가통계발전전략(NSDS) 개선
  - \* PARIS21이 기존의 NSDS 재검토 필요
- (제도적 장치) 행정자료, 빅데이터 등의 자료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및 제도적 장치 설치\*
  - \* 국가 및 국제기구의 통계활동을 감시하는 “Worldstat”과 같은 민간독립기구 설립
- (새로운 접근방법) 위성이미지 사용, SDGs를 위한 실험적 통계 개발 등 실험적 방법 시도 필요\*
  - \* 이를 위해 IEAG에서는 “SDG 실험실”(SDGs lab) 구축 제안
- (역량구축) 개도국의 SDGs의 지표 생산의 통계적 역량 구축\*을 위한 제도·재정적\*\*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을 위한 “SDGs자료”(data compact)의 개발 필요
  - \* UN 사무총장의 통합보고서(synthesis report)에서 개발을 위한 새로운 투자의 중요한 부문으로서 IEAG의 “통계역량구축”(statistical capacity building) 관련 권고를 채택
  - \*\* 제3차 “발전을 위한 재정국제회의”(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)가 '15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 될 예정

한국대표(박경애)의 질문 요지:

Q: 17개 목표, 169타켓 등에 관해 정부간협상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고, 그에 따라 모니터링 지표 등도 달라질 수 있을텐데, 지표를 언제, 누가 최종 결정하며 그 process에 대한 설명?

A: UNSD에서 설명 예정

## □ 세션2의 주요 내용

- ◆ 발표자: Mr. Padraig Dalton  
(현 통계생산과 서비스의 현대화 HLG 의장, 아일랜드 통계국장)
- ◆ 통계의 현대화를 위한 자료원천, 제도 및 법적 프레임워크, 기술발전, 현대화 프로그램의 표준화의 역할, 소통문제를 논의

### ○ 공식통계의 환경

- (통계작성 요구) 사용자의 다양한 통계 생산 및 통계배포에 대한 요구 증가
- (글로벌 사용자)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를 이용하는 국제적 사용자(global users) 등장
- (디지털 시대) 신기술, 새로운 자료원천 등 발생 및 국가통계기관의 내부 전문가 양성 여부와 외부 아웃소싱간의 논란 발생
- (정치화)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공식통계의 정치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통계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 강조
- (자원) 최근 다양한 통계작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증가 필요

### ○ 효율적 통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장치 구축

- (구축분야) 독립성(independency), 분석의 객관성(objectivity), 자료의 통합(integrity)과 비밀보장(confidentiality) 유지
- (통계프레임워크의 원칙) 개인정보 보호 등의 “자료보호”, 자료의 접근 가능성 등 “정보이용의 자유”, 자료수집 권리와 독립성을 위한 “통계법” 구축

### ○ 이차 자료원천

- (빅데이터) 빅데이터의 새로운 자료생산 가능성으로 많은 관심과 시도가 있지만 실제 관련 결과물들이 생산되고 관련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함

- (행정자료) 행정자료 이용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있으며 자료유용성, 이용의 혜택 등에 대한 자료보유자들을 교육하는 등 소통 필요

## ○ 기술 발전

- (투자) 디지털 세상의 발전 속도에 맞추기 위해 통계청이 어떤 부문에 투자를 할 것인지와 외부에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
- (민관협력) 국가통계기관간의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필요

## ○ 현대화에 기반한 기준 설정

- (기준) 효율적 통계생산을 위한 GSBPM, GSIM, DDI, SDMX 등 기준 개발된 공통된 언어와 기준 사용 필요
  - \* 일반적통계업무과정모델(GSBPM: Generic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odel), 일반통계정보모델(GSIM: Generic Statistical Information Model), 자료문서계획(DDI: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), 통계자료와 메타자료 교환(SDMX: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) 및 공통통계생산체계(CSPA: Common Statistical Production Architecture)
- (국제통계사회) 국제통계사회가 공식통계의 현대화를 위해 기존의 기준들을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구축하고 협력하도록 역할 강화 필요
- (협력) 현대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 설정과 국가 및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화에 대한 효율적인 메카니즘 구축 및 협력 필요

## ○ 소통

- (홍보) 공식통계의 신뢰성 등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 소통전략과 하나의 목소리로 “브랜드 메시지”(branding messages)를 전달할 필요 있음
- (교육) 높은 신뢰성, 고품질 등 공식통계의 장점을 현대화된 사용자들에게 교육하고 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

한국대표(박경애)의 질문 요지:

Q: 빅데이터의 중요성, 한국의 온라인물가지수관련 노력, 이차자료를 위한 자료 연계(행정+행정, 조사+조사, 행정+조사)등을 연구 계획인데, quality assurance 가 가장 중요. 이를 위한 지식공유 등 국제적 메카니즘 여부?

A: 같이 고민하는 단계로, 네덜란드와 한국이 앞서간다고 생각, UNSD와 UNECE 에 있음

\* UNSD가 Big Data Global Working Group에 한국 초청하겠다고 의사 표명

## □ 세션3의 주요 내용

- ◆ 발표자: Mr. Geert Bruinooge  
(전 네덜란드 통계청 부국장)
- ◆ 공식통계의 Post-2015 발전의제 등 내외부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된 통계(integrated statistics) 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실행 방법 논의

### ○ 통합된 통계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특징

- (필요성) 공식통계의 다양한 내·외부 도전과제\*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통계작성을 위한 현대화 프로그램 필요

\* 빠른 기술변화, 국제화, 새로운 자료이용 가능, 시의성 높고 다양한 자료 요구, 예산 감소 및 비용효율성 개선, IT 환경변화 등

- (특징) 직원의 기술 및 관리적 전문성, IT 환경의 현대화, 통계생산 과정의 조화 및 집중화, 통계기관의 법적·규제적 환경 재설정

### ○ 기존 공식통계 작성 시스템

- (전통적 방식) “스토브파이프”(stove pipe) 또는 “사일로”(silos)\* 방식으로 작은 기관단위가 하나의 통계의 전 생산사이클을 책임지고 있음

\*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를 뜻하지만 전체를 보기보다는 부문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사일로 현상(silo effects)이라고 함

- (단점) 비효율성, 협력 부족, 전문성 중복, IT-자원의 높은 관리 비용, 부분적 품질 문제 야기

### ○ 통합된 통계생산 방식 및 혜택

- (새로운 방식) 서비스 지향적 업무(service-oriented business)\*와 정보아키텍처(information architecture)에 근거한 대주제별 구축부서\*(organisation units)와 전문화된 공동서비스부서\*\*(corporate service units)에서 통계생산과정을 주관

\* 예를 들어, 통계생산부서와 통계지원서비스부서

\*\* 자료수집, 방법론 및 과정개발, 프로젝트관리, IT-서비스 및 앱

- (혜택) 공통된 통계업무 및 정보 아키텍처 관리, 전문성 및 프로젝트 관리 및 조정, 정책적 요구 대응, 비용 효율성 향상, 품질 개선, 응답 부담 감소, 공통방법 및 IT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협력 등이 가능
- (비용 및 투자) 전문가\*, 새로운 방식 적용을 위한 훈련, IT 환경 구축 및 조직 재설계 필요
  - \* 주제별 전문가, 프로젝트 관리자, 방법론자 및 IT 기술자
- 단, 국가의 통계시스템이 집중형이나 분산형에 따라 구축상황이 상이함

### ○ 일반적 구축 원칙

- (원칙) GSBPM\*과 같은 공동 업무와 정보아키텍처 사용(corporate business and information architecture), 2) 공식통계 기본원칙에 근거한 법적 권한의 채택, 3)기준과 메타자료 주류화, 4) 행정자료의 이용 최적화, 5) 자료의 다목적 사용 최대화, 6) top-down 에디팅과 무응답 대체, 7) 방법론적 혁신과 현대화 계획, 8) 통계영역간 모듈적 IT-적용 개발, 9) 품질문화 구축, 10) 개선과 변화 관리
  - \* 일반통계업무과정모델(GSBPM: Generic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odel)은 통계의 품질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뉴질랜드 통계청 및 유럽지역 통계청에서 연구하여 개발한 통계절차기반의 모형

### ○ 실행 과정

- (단계적 접근) 1) 파트너쉽 구축, 2) 현재 상황 평가 3) 개선영역 파악 4) 국가통합통계프로그램 구축 5) 소통 및 지원 6) 프로그램 관리 7) 통계통합시스템 설계 8) 통합통계프로그램 평가
- (파트너쉽 구축) 모든 기관이 참여하고 새로운 규칙과 책임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MOU 체결
- (현 상황 평가) 통합시스템의 영역에 있는 모든 통계의 상세 목록\* 작성
  - \* 통계목록, 내용, 모집단, 부서, 출처, 주기, 방법의 유의성, 시의성, 배포방법, 생산기관, 주요 사용자 등

- (개선 영역 파악) 관계자들의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빠른 결과 도출과 품질 및 비용에서 유리한 영역을 선택
- (국가통합통계프로그램 구축) 고위관리, 관계자 및 재정관리 등이 모여
  - 1) 목표와 범위, 2) 기대되는 혜택, 3) 비용 산출, 4) 관련 기관, 5) 일정, 6) 접근 방법, 7) 독립된 하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수를 논의하고 상세프로그램 작성 및 협정 체결
- (소통과 지원) 주된 사용자(관련부처, 국회 등)와 통계생산자들간의 외부 소통 및 생산과정에서의 직원들과 관리자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내부 소통 실시와 지원 요청
- (프로그램 관리) 고위급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위원회,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통합통계 프로그램을 관리
- (통합통계시스템 설계) 모든 과정에 대한 상세 설계, 개발 비용 및 시간, 이득의 계량화를 하고 시작 전 모든 장애물 제거
- (프로그램 평가) 통합통계시스템은 가치사슬이므로 생산과정의 사슬간의 계획, 제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든 목표가 달성하였는지를 평가

## □ 세션4의 주요 내용

- ◆ 발표자: Mr. Mohamed Taamouti  
(전 모로코 통계과장)
- ◆ Post-2015 발전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 통계작성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기존의 제안된 국제적 계획들을 검토하고 민간시민사회 및 학계.연구소와의 파트너십 방법 논의

### ○ Post-2015 발전의제에 따른 자료혁명이 진행중

- (합의)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공식통계생산 요구,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통계시스템의 변화요구는 선진국 및 개도국에게는 큰 도전과제를 부여

### ○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고려사항

- (국가) 법적 체계, 독립성, 조정 등 지속적인 효율적인 체계 구축, 자체 전략 수립, 국제적 기구의 지원 필요
- (국제) 중복된 미션을 가진 많은 관계자들, 많은 국제 및 지역적 계획, 프로젝트 및 파트너십, 통계발전 측정에 대한 폭넓은 합의 부족

### ○ 통계사회와 국가통계인의 역할

- 각 자의 영역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이용가능성이 우선적 이슈이므로 국가통계인들은 SDG를 만드는 사람임을 인식
- 이런 측면에서 UNSC와 UNSD는 중요한 책임을 가짐

### ○ 기존의 제안된 활동

- (UNSG 보고서) UNSC의 책임하에 자료와 관련된 프로그램\*을 수립하고 행동계획들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국제 파트너십 구축

\* 적용가능한 원칙 및 기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 구축, 국가통계역량 지원을 위한 혁신적 새로운 재정방안, 지도력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자료 파트너십

- (FOC의 제언) SDG 지표에 대한 기관간 전문가그룹(IAEG-SDG: Inter-agency Expert Group on SDG) 설립\*, post-2015 모니터링에 대한 파트너십, 조정 및 역량구축 HLG(HLG for Partnership, Coordination and Capacity Building for post-2015 monitoring) 설립\*\*, 격년의 SD 자료 세계포럼(World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Data) 개최\*\*\*
  - \* 목표와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, 실행을 가이드하고 국제 및 지역수준에서의 목표와 세부목표에 대한 진전을 보고
  - \*\* post-2015 모니터링과 가능한 조정에 대한 통계역량구축을 위한 전략과 활동을 논의하고 통계를 위한 재정지원 이슈 표명
  - \*\*\* 공공과 민간자료 생산자 및 이용자들이 함께 최신의 자료혁명과 post-2015 모니터링에 이용가능성을 논의
- (FOC의 제언) Post-2015 모니터링을 위한 HLG의 TOR 제안
  -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활동 논의
  - 자원의 동원과 관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제안 및 지지 개발
  - 신기술의 이용가능성 검토를 위해 국가간 자료인프라 이슈에 대한 권고안 검토 및 작성
  - 통계사회 내외부의 제도의 동력화와 필요시 파트너십을 확장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조정
- (UN의 MOU) 개발은행들과 POST-2015 개발의제의 벤치마크를 위한 강력한 통계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을 위한 MOU 체결('13. 4. 19)
  - 자료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과 전략에 대한 정치적 논의에 영향을 주는 행동
  - 가구 웰빙의 표준화된 측정, 환경계정의 분야, 국민계정 및 행정자료 시스템의 통계적 활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자료생산과 접근성에 있어서 선택된 몇 개의 어려운 껍을 표명
  - 자료생산과 자료접근성의 개선을 이한 혁신적 접근방법의 지식공유 강화
  - 극빈층의 빈곤과 웰빙의 국제적 측정 책임을 지고 있는 WB팀을 가이드하는 최근 설립된 국제빈곤통계위원회(Global Poverty Statistics Board) 지원

- (UNSC의 빅데이터) 2014년 UNSC는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국제작업그룹(GWG on Big Data) 설립을 제안
  - Post-2015 발전의제의 지표를 포함한 공식통계의 빅데이터에 대한 국제적 프로그램의 전략적 비전, 방향 및 조정을 제공
  - 빅데이터 자료원천의 실질적 사용을 촉진
  - Post-2015 발전의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빅데이터 사용의 역량구축과 지지를 촉진하고 공식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 구축
- (그 외 사례) PARIS21의 자료혁명의 정보제공(Informing a Data Revolution)에 대한 프로젝트, WB와 WHO의 국제시민등록 및 생명통계(Global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) 수준향상 투자계획(Scaling Up Investment Plan), 부산행동계획(BAPS), 통계개선을 위한 아프리카 심포지엄, 아프리카의 통계역량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체계, IMF 주도의 아랍지역 통계 개선 등

#### ○ 결과와 자원할당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논의

- 새롭게 제안된 실체(entities)와 계획(initiatives)은 조정, 역량개발 및 재정에 대한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인가?
- 새로운 제도와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?
- 새로운 기구의 설립과 기존의 기구들을 필요한 조정과 적응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하는가?

## □ 논의 결과 성과 (UNSD)

- (통계프로그램 개발) Post-2015 발전의제를 위한 통계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통계프로그램 개발
  - 통계 원칙과 기준을 수행
  - 국가통계계획 및 통계개선으로 국가통계활동을 통합
  -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 지원
  - 새로운 방법, 기술 및 자료 사용을 촉진
  - 국제 및 국가적 수준의 조정 강화
- (활동/주제 구성) 프로그램의 폭넓은 활동 및 주제 구성
  - 프로그램을 브랜드하기 위한 공통 소통 및 지지 전략을 채택
  - 국가통계전략체계 업데이트
  - 자료생산과 접근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의 갭을 채우고 행정 자료와 빅데이터의 더 많은 활용
  - 혁신적 방법과 기술의 소개와 공유
  - SDG 지표와 국제 빈곤 및 불평등 측정을 지원
- (현대화 프로그램/통합통계접근법) 각 국의 통계시스템, 개발수준 및 집중화 수준이 다름을 고려하여 현대화 프로그램에 근거한 기준과 통합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통계접근법을 선택
- (국제프로그램/통계역량) UNSC, CCSA 및 MOU를 통해 국제 및 지역 통계기관과의 강력한 조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국제프로그램 실행과 국가수준의 통계역량개발

## 4. UN 대표부와의 업무협의

### 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'15. 1. 14.(수), UN 주재 한국대사관
- 참석자: 오준 대사, 이동규 참사관, 여창훈 서기관

### □ 논의내용

- Post-2015 개발의제와 관련한 정부간 협상은 8차례 진행될 예정

차수	회의 일정	논의 내용
제1차 회의	'15. 1.19~21(3일)	stocktaking
제2차 회의	'15. 2.17~20(4일)	선언문
제3차 회의	'15. 3.23~27(5일)	지속가능발전 목표(goals) 및 세부목표(targets)
제4차 회의	'15. 4.20~24(5일)	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
제5차 회의	'15. 5.18~22(5일)	후속조시(follow up) 및 평가(review)
제6차 회의	'15. 6.22~25(4일)	결과문서 문안 협상
제7차 회의	'15. 7.20~24(5일)	결과문서 문안 협상
제8차 회의	'15. 7.27~31(5일)	결과문서 문안 협상

- 정부간 협상시 통계청의 적극적 참여 요청
  - Post-2015 발전의제 목표(goals)와 세부목표(targets)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있어 통계청의 중요성이 논의되므로 통계청의 참여 필요
- Post-2015 발전의제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역할 강화 필요
  - 향후 통계청에 대한 국제적 요구사항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
  - 또한, 개도국의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체계 개선 등에 통계청이 통계개발 등에 지원 강화 필요
  - 우리나라의 신규 필요 지표(indicators) 개발시 통계개발원의 역할 필요

- 목표(goals)와 세부목표(targets)의 조정 이슈
  - 우리나라 및 선진국은 17개 목표가 많아 이행가능이 어려워 목표수 감소 주장
  - 개도국으로 구성된 77개 그룹은 현재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의 유지 강조
- 체계적인 모니터링, 평가체계 및 책임성(accountability) 논란
  - 우리나라 및 선진국은 모니터링, 평가체계 및 책임성 포함 주장
  - 개도국은 결과문서 작성시 모니터링과 평가의 구체적 언급 및 포함에 대해 소극적이고 책임성 문제 언급 반대
- 지표(indicators) 개발 및 정부간 협상시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
  - 선진국은 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UN 통계위원회에서 결정\* 되어야 하며, 정부간 협상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
    - \* SDG 공개작업반 보고서 채택(14. 9월)'이후 통계위원회에서 관련지표 개발 작업 진행중
  - 후진국은 지표가 정부의 협상과정에서 통계위원회가 개발한 지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
- 이번 “UN 공식통계의 변화 국제회의” 관련 논의 내용 공유 요청
  -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한 통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 내용 파악 및 공유 필요

## 5. Post-2015 발전의제 국가간 협상 제1차 회의

### □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'15. 1. 19~21.(3일), UN 뉴욕 본부
- 참석자: 각 국 대표, NGO 등 민간 관계자 등 약 600명
  - 한국 대표단
    - (주UN대표부) 오준 대사(수석대표), 한충희 차석대사, 임훈민 공사참사관, 이동규 참사관, 여창훈 2등서기관
    - (외교부 본부) 박성훈 다자협력인도지원과 사무관, 홍다혜 유엔과 사무관, 박혜연 녹색성장외교과 행정관
    - (관계부처) 맹준호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 서기관, 박혜민 환경부 지구환경담당관실 사무관
    - (통계청) 박경애 통계개발원장, 김혜련 사무관
- 내용: Post-2015 개발의제와 관련한 현안 사항을 점검(stocktaking)
  - \* <http://sustainabledevelopment.un.org/post2015>에 웹캐스팅
- 회의 일정

일시		세션	논의 내용
1.21(수)	10:30-11:00	오프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총회의장</li> <li>▪ 반기문 사무총장</li> <li>▪ 경제사회이사회(ECOSOC) 회장</li> </ul>
	11:00-13:00	post-2015 진행 개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조연설: Nancy Birdsall,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s</li> <li>▪ 각 국 발언</li> </ul>
	15:00-18:00	지속가능발전목표와 post-2015 발전의제의 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표: Andrew Scott,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</li> <li>▪ 각 국 발언</li> </ul>
1.22(목)	10:00-13:00	선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표: Debapriya Bhattacharya, Centre for Policy Dialogue</li> <li>▪ 각 국 발언</li> </ul>
	15:00-18:00	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표: 노르웨이 대표</li> <li>▪ 발표: 가이아나 대표</li> <li>▪ 발표: Homi Kharas, Brookings Institution</li> <li>▪ 각 국 발언</li> </ul>
1.21(금)	10:00-13:00	후속조치 및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발표: Fatuma Ndangiza,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</li> <li>▪ 발표: Marianne Beisheim,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</li> <li>▪ 발표: Pali Lehohla, Statistician General for South Africa</li> <li>▪ 각 국 발언</li> </ul>
	15:00-18:00	주요그룹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NGO 관계자 등 발표</li> </ul>

## □ 논의내용

- (프로세스 개관 세션) SDGs 공개작업반(OWG) 제안서, 지속가능 발전재원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(ICESDF) 보고서, 유엔사무총장 종합 보고서 등 그 간 국제논의에 기초하여 향후 정부간 협상을 추진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함
- (SDGs와 Post-2015 개발의제의 통합) SDGs 17개 목표와 169개 목표 체제에 대한 선진국-개도국간 입장차는 지속 됨
  - G77 및 중국은 현 SDGs 체제는 광범위한 참여를 확보하여 장기간에 걸친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, 수정(reopening)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력 개진
  - 선진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목표 개수 조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기 보다는 목표간 상호연계성 및 이행가능성 검토를 위한 기술적 증명(technical proofing) 중심으로 발언
- (선언 세션) 국가들은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 의지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의지를 담아야한다는데 공감
- (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/후속조치와 평가 세션) 데이터혁명, 7월 아디스 아바바 개발재원총회 및 기존 메커니즘 활용의 중요성이 공통적인 견해로 제시
- 우리측 발언
  - (제1세션) 수석대표인 오준 주유엔대사는 한국의 경험에 기초한 교육, 양성평등, good governance 및 법치를 중점분야로 제시하고, 5월 세계교육포럼(WEF) 한국 개최,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(GPEDC),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등을 중심으로 우리의 입장을 강조
  - (기타세션)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의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편(reframing) 고려 필요성을

제기하고, 기후변화, 생물다양성 손실 등 다양한 도전에 대한 대처 필요성,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(GPEDC) 원칙 및 4월 개발협력포럼(DCF) 고위급 심포지움 한국 개최 등을 언급

- **(통계관련 발언)**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 통계(자료)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통계위원회 주관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표 선정 작업 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함을 강조
  - 특히, 개도국들은 지표작성을 위한 국가통계 시스템이 부족함을 강조하여 역량 확충 및 지원의 필요성 언급

## 6. 관찰 및 시사점

### □ Westat과의 협의

- Westat은 순수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통계생산기관에 가깝고, 통계 및 방법론국은 다양한 통계생산을 지원하면서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한국과 공유할 의사가 있으며, 국장이 현 미국통계학회장이므로 국제적 전문가 네트워크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

### □ UN 글로벌 (비공개) 통계변화 회의

- Post-2015 발전의제 지원관련 자료혁명 등 일련의 변화에 대해 각국, 지역 및 국제 통계기관은 위기이자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
  - 우리 실정에 맞는 선제적 국내 전략 마련이 필요
- UNSD는 현재의 17개 목표, 169개 세부목표(타겟), 100개의 지표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
  - 타겟별 지표는 어림잡아 500(PARIS21)~1,000(South Africa)개로 예상 하나, 100개 지표는 유지될 것이고, 핵심지표, 보조지표, 타겟별 지표 등의 수치에만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
- UNSD는 9월 정상회의 이전에 지표관련 잠정안 제출을 요구받아 2월에 전문가회의, 7월에 회의개최, 2016년 UNSC에서 확정 예정
- Big data가 국가통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, 개념, 정의, 품질 등에서 연구와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Global Working Group의 중요성이 부각되며, 한국이 초청되면 참가 필요
- 통계관련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
  - UNEP는 홈페이지\*에 관련 자료 공유 및 평가를 위한 각국의 지표를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서비스하고 있어 향후 post-2015 관련 지표 확정시 활용 가능

\* <http://uneplive.unep.org>

- 네덜란드대사관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통계인과 정치인 (대사 등)의 모임을 주선하여 통계와 지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소통함
- 한국도 국내 통계발전을 위한 소통·홍보 전략 필요

## □ UN의 1차 정부간 협상회의

- 정부간 협상회의는 UN홈페이지\*에 모두 웹캐스팅되기 때문에 회의 내용 팔로우업을 위해 통계청이 UN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필요는 없음
  - \* <http://sustainabledevelopment.un.org/post2015>
- 다만, 외교부 주관 국내 워킹그룹에 적극 참여하여, 정부간협상시 통계와 관련 정부의 입장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 필요
- 대다수 선진국은 1차 협상에서 통계 및 지표관련 입장 표명
- 정부간 협상회의에서 선진 각국 및 국가그룹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, 통계는 전문가들(UNSC, UN Task team 등)에게 맡기도록 외교부와 역할분담 협의